

더불어 민주당 북한이탈주민특별위원회		보도참고자료	
보도일시	2025. 4. 1.(화) 16:30	배포일시	2025. 4. 1.(화) 16:30 배포 즉시
위원장	송재봉 (02-784-7380)	담당자	정찬재 비서관 (02-6788-6211)

더불어민주당 북한이탈주민특별위원회, 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성 기자회견 개최

- 송재봉 위원장,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헌법재판소의 책임 있는 결정을 강력히 촉구한다" -

- 더불어민주당 북한이탈주민특별위원회(위원장 송재봉)는 오늘(1일) 오후 3시 국회 소통관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성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 기자회견에는 북한이탈주민특별위원회 송재봉 위원장을 비롯한 특위 부위원장단, 전주명 (사)통일을준비하는탈북자협회 회장, 조경일 피스아고라 대표, 강진 (사)송의동지회 회장, 최화순 어르신힐링협회 회장, 홍미향 (사)한반도미래행복연합 대표 등이 참여하여 대통령 윤석열 파면의 필요성을 호소하고, 헌법재판소의 책임있는 결단을 촉구했다.
- 송재봉 위원장은 “자유와 민주주의를 찾아 이 땅에 정착한 북한이탈주민들에게 12.3 비상계엄은 심각한 불안감을 심어주었다”라며, “헌법재판소가 내란수괴 윤석열 파면을

통해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수호하는 단호한 의지를 보여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끝//

붙임_기자회견문, 기자회견 개요

[붙임1] 기자회견문(낭독: 북한이탈주민특위 조경일 대변인·부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우리 북향민들은 북한 독재정권의 피해자들입니다.

우리는 자유와 인권, 민주주의 가치를 대한민국에서야 처음 얻었습니다. 우리는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는 자유와 정의를 믿고 이 땅에 정착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나라의 법치주의가 얼마나 소중한 가치인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3일 저녁까지, 대한민국은 법과 원칙이 지켜지는 나라이며, 국민의 권리가 보장되는 민주국가였습니다. 그러나 ‘자유’와 ‘인권’이라는 단어를 매일 같이 입에 달고 있었던 윤석열 대통령이 무장군인을 동원해 하룻밤에 자유와 인권을 짓밟았습니다. 참으로 위선으로 가득차고 무도한 정권입니다.

오늘 우리는 민주시민의 한 구성원으로, 자유와 인권이 훼손되는 현실을 목도하면서, 이를 납득할 수 없다는 절박한 목소리를 내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무장한 군인이 도시를 활개하며 시민에게 충구를 들이대는 곳은 북한 하나로 족합니다. 북한은 계엄상태가 일상인 곳입니다. 우리는 정치적 억압과 인권 침해의 현실을 직접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3대 세습 독재정권의 폭압을 온몸으로 맞았습니다. 국가의 폭력이 일상인 곳이 바로 북한입니다. 독재자의 횡포가, 국가의 폭력이 일상을 지배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폭정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중국에서도 신변의 위협에 노출되어 중국에서 노예노동과 성폭력 등 온갖 폭력에 시달렸습니다. 그런데 국가폭력을 정당화 하는 계엄사태가 한국에서 발생했다는 것은 북향민들에게 또 다른 국가폭력의 가능성을 의미합니다.

한국은 북향민들에게 안전의 땅입니다. 국가의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곳입니다. 억눌렀던 감정을 쏟아내도, 정치인을 비판해도 신변에 위협을 받지 않는 안전한 곳이라는 사실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이 북한과의 가장 큰 차이를 만들어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2024년 12월 3일 밤, 귀를 의심케 하는 계엄령이 선포됐습니다. 계엄사령부 포고령(제1호)의 내용은 공포 그 자체였습니다. 계엄사령부 포고령을 보면 경악스럽습니다. 현재 북한의 모습과 너무나 닮았기 때문입니다.

계엄사령부 포고령을 보면 섬뜩해집니다. 현재 북한정권이 인민들에게 하는 짓과 거의 똑같기 때문입니다. 계엄령 국가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고, 무력으로 국민을 통제하는 상황을 정당화 합니다.

북한은 주민들의 정치활동이 전면 금지된 곳입니다. 오직 당과 수령을 위해 충성해야만 살아남는 곳입니다. 정부에 대한 비판은 곧 죽음을 의미합니다. 오직 독재자에 대한 찬양만 있을 뿐, 정치적 결사의 자유도 없으며 집회나 시위도 없습니다. 이는 흡사 계엄사령부 포고령 1항과 비슷합니다. 글로벌 선진국 대한민국에서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지’ 한다는 것은 곧 북한과 같은 상태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북한은 출판의 자유도 없습니다. 그러니 읽을 자유도 읽을거리도 없습니다. 하루에도 수십 종 이상의 신간이 출간되는 대한민국에서 출판을 통제 받는다는 것은 상상하기 힘듭니다.

포고령의 각 항목을 보면 하나같이 북한이 하는 작태들을 그대로 모방했습니다. 이러니 북향민들에게 계엄령은 과거의 트라우마와 공포를 떠올리게 하기에 충분합니다.

계엄령을 비판해야 하는 이유는 명백합니다. 계엄사령부의 포고령은 모든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는 내용들이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영장 없이 체포 및 구금할 수 있다는 내용은 독재시대로의 회귀입니다.

우리 북한민들은 극도의 국가폭력을 경험했습니다. 따라서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선포 행위를 강력히 비판합니다. 모든 국가의 폭력은 금지되어야 합니다. 국가를 전복하려는 시도가 아닌 이상 개인의 자유는 보장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입니다.

우리가 계엄선포 행위를 비판하는 이유는 명백합니다. 북한민들은 정치적 억압과 인권 침해의 현실을 직접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자유와 인권,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민을 향해 총을 들면 대통령도 감옥에 보낼 수 있는 나라, 바로 대한민국이 그런 나라임을 북한 주민들에게 분명히 보여주어야 합니다. 이것만이 북한 주민들에게 희망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기일이 다가오는 4일(금)로 지정되었습니다. 장장 4개월에 걸친 국민의 기다림에 마침내 헌법재판소가 응답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을 내려줄 것을 기대합니다. 헌법수호 최후의 보루로서 정의롭고 공정한 판결로 내란수괴 윤석열을 파면하여 주십시오. 헌법재판관 8인은 주권자인 국민이 권한과 역할을 위임한 공직자임을 명심하고, 전원일치 탄핵 선고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수호에 앞장서 주십시오.

2025년 4월 1일(화)

더불어민주당 북한이탈주민특별위원회(위원장 송재봉),
(사)통일을준비하는탈북자협회, 피스아고라, (사)송의동지회,
어르신힐링협회, (사)한반도미래행복연합, 통일봉사단 일동.

[붙임2] 기자회견 개요

- 제목 : 더불어민주당 북한이탈주민특별위원회, 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성 기자회견
- 일시 및 장소 : 2025년 4월 1일(화) 15:00,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주최 : 더불어민주당 북한이탈주민특별위원회
- 사회 : 송재봉 북한이탈주민특별위원장
- 발언
 - 참석자 소개 및 기자회견 취지설명(송재봉 위원장)
 - 기자회견문 낭독(조경일 북한이탈주민특별위원회 대변인·부위원장)

※ 참석자

- 송재봉 국회의원
- 전주명 북한이탈주민특별위원회 수석부위원장
 - ((사)통일을준비하는탈북자협회 회장)
- 조경일 북한이탈주민특별위원회 부위원장·대변인(피스아고라 대표)
- 강진 북한이탈주민특별위원회 부위원장((사)송의동지회 회장)
- 최화순 북한이탈주민특별위원회 부위원장(어르신힐링협회 회장)
- 김정호 북한이탈주민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김충석 북한이탈주민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김인철 북한이탈주민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홍미향((사)한반도미래행복연합 대표)
- 김영옥(통일봉사단 단장)